

동화

윤제학 (본지 취재2부 부장·동화작가)

부처님이 눈을 떴어요



털보 아버지 손은 요술을 부려요
넓적한 돌이 부처님으로 변하고
아버지 웃음이 너무 좋습니다

름을 여쭙보려다가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털이 워낙 더부룩해서 입술이 보이기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를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말고도 아버지께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지도 나이가 몇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땐 아이 같은 얼굴로 보이다가 또 어떤 땐 할아버지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털보 아버지는 부처님 만드는 일만 하십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는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기계로 쓰지 않습니다. 꼭 손으로만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 돌에 피가 돈다네요. 하지만 예림이는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손은 요술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넓적한 돌이 아버지의 손에 거머쥘 살아서 움직일 듯한 모습으로 바뀌니까요. 언젠가 아버지가 만드는 부처님의 웃자락을 보고.

“웃자락이 바람에 날릴 것 같아요.” 하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웃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드러내 놓고 좋아하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예림이가 친구들에게 들은 '사오정 시리즈' 얘기를 해도 조금 밖에 웃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림이는 실망하지 않고 친구들이 재미난 얘기를 할 때마다 잘 기억해 왔다가 아버지께 들려 드리곤 합니다. 아버지도 듣지 않으시는 않은지 그만 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소풍날에도 예림이는 도시락을 하나 더 싸 달래서 아버지께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씩 웃으시며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다. 예림이는 그런 아버지의 웃음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만드셨던 부처님이 오늘 완성됐다는 말이로구나.”
“엄마도 참, 눈을 땀땀이네요.”
“맞아, 엄마가 잘 몰랐구나. 그런데 눈 뜬 부처님이 어땠든?”
“꼭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겠구나?”

“아뇨,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가 한참 뒤에는 무슨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바라보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기분이 어퍼시냐고 여쭙보지 그랬나.”

“엄마, 제가 아무리 어린애지만,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것 좋은 알아요.”

“그래? 오늘은 엄마가 예림이한테 많이 배우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엄마가 예림이한테 재미난 얘기 해 줄게. 너, 불국사가 어떤 줄 알지? 그 불국사의 큰법당 앞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에 관한 얘기란다.”

예림이는 이런 엄마가 너무 좋습니다. 공부하란 말은 가끔씩만 하고, 쌀을 씻다가도 재미난 얘기가 생각나면 예림이와 얼굴을 마주 하니깐요. 그래서 그런지 예림이도 재미있는 얘기라면 전자 오락만큼이나 좋아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까지도요.

가만가만 엄마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불국사를 다 지은 후 김대성은 탑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진실된 석수를 만날 수 없어서 애만 태우게 되었지. 그래서 김대성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었다. '진실한 석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말았어.

드디어 백 일 간의 기도 끝에 김대성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부처님은 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다. '백제에 가면 아사달이라는 석수가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라.' 이 말을 들은 김대성은 곧장 백제를 향해 길을 떠났지. 아사달이라는 이름 석자만 달랑 들고 말았어. 그러니 어디 찾기가 쉬웠겠니. 갖은 고생 끝에 김대성은 드디어 어느 산골에서 아사달을 만났단다.

마침내 신라로 건너온 아사달은 몇 년에 걸쳐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웠는데, 돌을 깎는 게 아니라 차라리 뼈를 깎는 것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다보탑을 세울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구나.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고, 언제나 착한 일을 하겠습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우주의 만물과 한몸이라는 마음으로 이 탑을 세웁니다.'

또 석가탑을 세울 때는 '티끌 같은 욕심도 버리고, 오직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이 탑을 세웁니다.'

하고 말았어.

엄마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예림이는



삼화 최혜락

한참 동안 마음 속으로 털보 아버지를 그려 봅니다.

“엄마, 털보 아버지도 아사달과 같은 마음이었겠지.”

“아마 그럴 거다. 엄마도 그렇단다. 일요일에 한 번씩만 부처님을 만나러 절에 가는 게 아니란다. 예림이 양말을 빨 때도, 방을 닦을 때도, 쌀을 씻을 때도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단다. 세상 온갖 것에 다 부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으니깐.”

예림이도 털보 아버지나 아사달처럼 아주 정성스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란다. 그러면 예림이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이 들어오신단다.”

엄마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림이는 스프리 잠이 듭니다. 그리고 예림이는 털보 아버지가 만든 커다란 돌부처님이 예림이에게로 다가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어쩌면 잠에서 깨어난 예림이의 머리맡에 진짜로 부처님이 와 계시지도 모를 일입니다.

엄마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예림이는

“엄마, 부처님이 눈을 떴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예림이가 대뜸 엄마에게 한 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부처님이 눈을 뜨다니?”
엄마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예림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아휴, 답답해. 바로 저기 서 계시던 부처님이 오늘 눈을 떴단 말이예요.”
예림이는 마치 보이기라도 한 듯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까지 하며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어는, 갈수록 흥단지 같은 소리만 하네.”
엄마에게는 흥단지 같은 소리일 수밖에요. 예림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참, 그렇지. 엄마는 잘 모르시겠네.”
하며 예림이는 그 동안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림이의 길입니다.
같이 들어서자마자 예림이는 먼저 파수원의 배나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 중 몇 나무에는 별명까지 붙여 놓았습다. 홀쭉이, 땅달보, 날씬이, 멧쟁이... 얼핏 보면 다 같은 나무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른 모습이지요. 하지만 5월이 되어 하얀 꽃을 피울 때는 구름으로 만든 커다란 이불을 덮고 자는 한 형제들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롱조롱 예쁜 배가 매달린 모습을 보면 예림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것을 보며 예림이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것들이 아빠 주먹만하게 자라면 여돌방학이 되겠지.’
배밭이 끝나면 포도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포도밭은 별로 예림이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름으로 뿌려 놓은 닭똥 냄새가 싫기도 하지만 언제나 의심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주인 아버지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도가 익을 때 나는 냄새는 참 좋습니다. 그때면 예림이도 일부러 천천히 포도밭을 지납니다.
포도밭을 지나면, 드디어 예림이가 가장 좋아하는 돌 공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돌들이 갖가지 모양의 조각품으로 바뀝니다. 사자처럼 생긴 ‘해태’가 상상 속의 동물이란 것도 이곳에서 알았습니다. 그 동안은 과거 회사 이름으로만 알았거든요. 또 재미있는 건, 그 해태라는 동물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내는 재주를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림이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날에만 해태 위에 한 번씩 올라 타 보곤 합니다.
돌 공장에는 여러 명의 아버지들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털보 아버지와 가장 친합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예림이도 학교에 갈 때보다 집으로 올 때가 더 좋습니다. 골치아픈 공부 안 하고 신나게 놀 수 있어서 그렇고요?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인데요.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부처님이 눈을 떴으니까요.

“엄마, 부처님이 눈을 떴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예림이가 대뜸 엄마에게 한 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부처님이 눈을 뜨다니?”
엄마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예림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아휴, 답답해. 바로 저기 서 계시던 부처님이 오늘 눈을 떴단 말이예요.”
예림이는 마치 보이기라도 한 듯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까지 하며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어는, 갈수록 흥단지 같은 소리만 하네.”
엄마에게는 흥단지 같은 소리일 수밖에요. 예림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참, 그렇지. 엄마는 잘 모르시겠네.”
하며 예림이는 그 동안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항상 부처님을 만난단다
쌀을 씻을때도 방을 닦을때도
예림이도 어떤 일이든 정성껏 하면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들어오신단다

오채 투지 호흡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방법
3천배를 천일간, 보궁·성지 등에서 만백씩 100일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절하며 500만배를 하면서 특정한 비법으로 절해 숨까지 없고 혈맥까지 끊어지며 숫자는 자못 늘어났고 해아려지고 삼천배를 하여도 힘들지 않고 밝은 기운이 복차며 병고 역난 악업의 업장을 절로 녹고 단전혈이 열려 일상생활에서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어 용천혈이 열려 용기와 빛깔이 생기고 명문혈, 백회혈 등이 열리는 불자라면 필히 알고 실천하여 터득해야 할 중요한 수행

광주불교의식대학 (추가모집)
과 목 : 제반의식, 상주권공, 시식, 불공의식, 화정, 바라춤, 나비춤, 각종사물다루는 법
마감일자: 2000년 5월 31일까지 접수받음
문의전화: 062)362-8604, 011)624-8604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해공스님 테이프 (1차녹음방송)
상단상주권공의식·대령 관육
중성, 전통아침예불·부모은중경·화정 (1,2)

천년의 신비를 재현하는 청자골 강진도강요
청자불상, 청자석등, 청자차다기류, 생활자기, 맥반석 용기 및 생활용품
신비의 돌 맥반석 찜질방
대표 윤도현
임직원일동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24-1
TEL : 0638-434-7788/7462

현대자동차 매매상사
품질 불차님의 안전운행과 고장없는 차량이 보증 판매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정숙
“갖는 도리를 좇지 말고 주는 도리를 좇아라”
- 대행콘스님 법어에서 -
파시는분: 전화 한 통화로 전문 딜러의 차량 도/소매 가격 정보 제공 및 방문후 정당한 판매가를 보장하며, 계약 당일 이전 등록을 책임지겠습니다.
시시는분: 품질 최우선의 신념 아래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전문 딜러가 감정선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직거래 판매합니다.
* 중고차 전자증 즉시 고가매입
* 신용카드 할부: 가맹점(6~18개월), 기혼자 무보증 할부(300만원/24개월), 전자증 매매/위탁/알선함, 당일 현금 지급
연락처: 광주영업소 016)622-9082(김정숙) 011)601-0621(박동현) Fax. 062)371-7544, 해남영업소 017)611-6670(박동권) Fax. 0634)536-8845